

# “오월 대동정신 계승”... 광주시민 따뜻한 ‘혈액 나눔’

혈액원, 5·18 맞아 시민 캠페인 진행  
45년 전 총상 환자 위해 헌혈 릴레이  
광주시청·전남대 헌혈버스 동참 발길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 오월 대동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광주 시민들은 1980년 지역 공동체의 연대 정신을 상기하며, 따뜻한 생명나눔 발길을 이어갔다.

1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단체 헌혈을 비롯해 많은 시민의 헌혈 참여 발길이 이어졌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헌혈에 참여했던, 45년 전 생명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광주시민 헌혈 캠페인’의 일환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광주시청에서 16일까지 헌혈버스를 운영,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로란 조끼를 입은 광산구적십자봉사회 봉사자들은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안내하며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했다.

김정숙(65) 봉사자는 “몸이 허락한다면 직접 헌혈을 많이 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 아쉽다”며 “시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헌혈에 동참했으면 한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많은 참여로 보유 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1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 헌혈버스에서 5·18 민주화운동 시민헌혈 기념식을 개최했다.

액량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기줄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고, 반창고를 붙인 채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이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철영(58)씨는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시청에 일을 보러 온 김에 동참하게 됐다”며 “헌혈을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5·18사

적지 1호인 전남대학교에서도 ‘전남대에서 피어난 민주화, 전남대에서 퍼지는 생명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이 진행됐다. 전남대학교는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당시 학생들은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과 충돌했고 금남로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헌혈에

참여했다. 도서관 별관 앞에 위치한 헌혈버스 2대에는 헌혈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헌혈을 마친 이들은 학우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으며 잠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헌혈한 학생들에게는 텀블러와 커피 쿠폰 등 선물도 증정됐다.

안민혁(26)씨는 “평소에도 학교 앞 헌혈의집에서 헌혈을 해왔지만 오늘은 45주년 5·18을 기념하는 행사라서 더 보람

있었다”며 “헌혈로 모인 혈액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신승환(26)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선배들이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며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될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동안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대학생과 복구 주민 등 14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15일에는 전남대 총장, 총동창회장, 총학생회장, 보직교수 등이 선배 박승희 역사를 참배한 뒤 릴레이 헌혈에 함께했다.

45번째 5·18기념일 구간을 맞아 지역 내 생명나눔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광주전남혈액원은 오는 17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 행사에서도 ‘오월정신과 헌혈’ 홍보버스를 운영한다. 당일 오후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이 옛 광주적십자병원에서 방문객들에게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오월 광주의 헌혈 역사를 해설할 예정이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적십자병원 등에서 총상 환자를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헌혈에 동참했다”며 “헌혈과 나눔으로 45년 전의 대동정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 오월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참배 자격 없어”

(사)오월어머니집·5·18서울기념회  
“영령들 눈 부릅뜨고 일어날 일”

오월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제45주년 5·18기념식 참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오월어머니집·5·18서울기념사업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침묵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내란 공범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

을 임명하면서, 반인권적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그의 종교 편향, 사회적 소수자 차별, 자질 논란 등을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임명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5·18이 벌어질 뻔했던 12·3내란이 일어난 뒤 안 위원장은 다시 반민주·반인권적인 작태를 드러냈다”며 “수사기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등, 내란수괴의 보호를 위해 인권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봄 4·3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안 위원장은 대선 국면에 갑자기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동안 5·18과 12·3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자가 뜬금없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속셈에 속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5·18묘지로 온다면 안장돼 있는 영령들이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날 것”이라며 “더 이상 5·18을 욕보이려 하지 말고, 인권을 지키는 대신 짓밟아온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준명 기자

## 교사 76% ‘극심한 소진 상태’... 교단 붕괴 경고음

제44주년 스승의날 설문조사  
‘근무여건 불만족’ 60% 넘어

교사 실태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7명이 ‘극심한 소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날 이틀전인 지난 13일 제44주년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설문조사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을 통해 교원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교사들은 총 352명(14%)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근무여건’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안전한 교육환경 마

련이 시급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사로서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질문에 교사 75%가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또 근무 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3분의 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근무 여건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45.6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11%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학생의 학습 환경은 교사의 근무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시스템의 구조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균 170여건 개회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보호와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등,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 광주 동구, 5·18 기념행사 안전관리 대책 ‘총력’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논의  
인파 밀집 따른 대피로 확보 등

광주광역시 동구가 성공적인 ‘오월 행사’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동부경찰, 동부소방과 같은 유관기관 관계자와 축제 실무자 등으로 구성

된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람객 안전 확보와 화재 예방’, ‘응급 대응 체계 마련’, ‘인파 밀집에 따른 대피로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오는 17일 열리는 5·18 기념행사 전야제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 유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윤준명 기자

## 광주·전남 오늘 최대 40mm 비... 주말 ‘포근’

남해안 지역 최고 60mm 예보

광주·전남에 16일 비가 내리면서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6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지역에

는 5~40mm,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예보됐다.

비와 함께 기온이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최고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1~2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토요일인 17일에는 비가 그치지만 흐

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은 16~17도로 평년보다 1~2도 높겠으며 최고기온은 또한 21~30도로 5도가량 높겠다.

18일 일요일 또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 12~16도,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오전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정준 기자

## ‘총든 남성 있다’ 광주 아파트 신고... “장난감 총이었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총을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15분께 광주의 한 수목원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강력팀 등 30여명

을 투입해 1시간여만인 오후 7시17분께 총을 들고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조사해보니, 이 남성은 실제 총기가 아닌 레저용 모형 총기를 손질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테러 위협 등이 우려돼 강력팀 등이 나서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정준 기자